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2월 구역예배 안내
각 구역별로 구역예배를 드리시고 구역장님께서서는 구역보고서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공부 안내(봄학기)
봄학기 성경공부 모임이 시작됩니다. (목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
교재 - 만화 교회론(백금산) 시작: 3월 7일(목)
- 뉴욕 밀알 화요모임 안내
3월 5일(화) 저녁에 뉴욕 밀알 화요예배 모임에 우리 교회가 참여합니다.
- 친교 안내
오늘 친교는 롱아일랜드 구역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다음 주 친교는 베이사이드 구역에서 준비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3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2/24		이경희	롱아일랜드	한순자
3/03	송 섭	최태신	베이사이드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지하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후 1:15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후 1:15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방학중)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요약

제목: 예수님의 기준 - 언행일치

본문: 마태복음 5장 33~37절

기도제목: 1.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2. 거짓말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게 하소서!

3. 말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태복음 5~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 번째 문제로 '맹세'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말과 행실이 같을 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1. 맹세를 너무 쉽게 깨뜨리는 세상

신명기6:1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라!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라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를 어기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깨뜨리게 되자, 맹세를 깨뜨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넣지 말고 맹세를 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하늘을 걸고 저 별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면, 나중에 맹세가 깨어져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은 피할 수 있지만 맹세를 반드시 지켜라라는 원래의 의도가 지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맹세는 깨어질 수 있다! 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의 맹세가 오늘 예수님의 표현처럼 헛 맹세가 넘쳐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마라!(34절) 왜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2. 맹세를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맹세를 많이 하는 사회일수록 부정직한 사회입니다.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지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들은 맹세가 필요 없게 살아라!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 구차한 맹세가 없어도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사람이 되어라! 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을 할 때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 나는 믿음만 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믿어 주나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말 한 그대로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말을 듣고 그 의미를 한 참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 속에 숨은 뜻과 의도를 다시 찾으려고 애를 써야 간신히 그 말뜻을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언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투명하게 살아 가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훨씬 깊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

말라의 의미가 무엇인 살펴보았습니다. 말했다면 반드시 그 말을 지켜라는 언행일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들을 신뢰하지 않으며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설교한 것처럼 살 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맹세에 관하여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우리 마음 속에 새겨 넣고, 맹세를 지킬 수 없으면 하지 마라 그리고 헛된 맹세는 하지 말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 솔직하게 투명하게 말하라! 이렇게 살아갈 때, 서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 헌금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2,3월 행사안내

2월 24일(주일) - 구역예배 모임, 노회 시찰회 당회록 점검 모임.
3월 5일(화) - 뉴욕 밀알 화요 모임, 7일(목) 성경공부 시작

교회 지원단체

뉴욕 밀알 선교단, 주님의 식탁, 뉴욕 농아인 교회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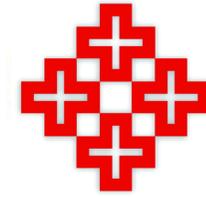
교육전도사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19년 2월 24일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기도 사무엘상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기도: 이경희 권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23장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7번(시편 16편)	
찬 송 Hymn	455장	
기 도(Prayer)	송명건 집사	
성 경 Scripture	마태복음 5장 33~37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예수님의 기준 - 언행일치	토요 새벽기도회
▲ 헌 금 Offering	71장	호세아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찬 송 Hymn	524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